

주일 예배 순서

- 성령강림절 후 제10주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시편 24:1-10 다함께

찬 송(Opening Hymn) 46장 다함께

교독문(Responsive Reading) 14번 다함께

공동기도(Prayer)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주님의 생명싸개 안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하루하루가 평범한 일상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살아가는 시간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 드립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저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임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사랑의 영을 부으시사 저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며 오직 예수님의 거룩한 형상만이 저희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Apostles Creed) 다함께

성경봉독(Scripture) 사도행전 16:19-34 인도자

말씀증언(Sermon) 이송원 목사

“고난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봉 헌(offering) 1장 다함께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Hymn) 383장 다함께

축도(Benediction) 이송원 목사

교회 소식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성도 간의 기도와 교제(전화, 카톡)를 통해 보이지 않는 믿음의 끈이 연결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우소식
 - 김희원권사님과 이춘희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제목>

-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 코로나 19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 선교사님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뢰하도록.
- 미국에 회개와 부흥을 통한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져 사회 전 분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말씀묵상〉 사도행전 16:19-34

25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26 이에 홀연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27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28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29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30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31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32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33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34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1.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한 일은 무엇이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25-29절) 나는 지금까지 고난을 만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했습니까?
 2. 간수가 자신의 생명을 지켜준 바울과 실라에게 던진 물음은 무엇이며 바울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30-34절) 나는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 우리의 신앙의 실체가 가장 잘 드러날 때는 가장 기쁜 일을 맞을 때나 가장 힘든 일을 겪을 때입니다. 그중 고난을 겪을 때는 평상시에는 생각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했던 우리 안에 깊이 감추어져 있던 자아의 본성이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무엇을 묵상하고 고백하는지를 살펴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난은 믿음을 달아보는 저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을 위해 의의 고난을 겪는 중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죄인 아닌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런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들의 믿음까지 가뒤편을 순 없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갇혔지만, 영은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간수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을 얻게 됩니다. 결국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간수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한 통로가 됩니다. 성도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한 고통의 과정이 아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거룩한 도구입니다. 내가 있는 고통의 자리에서 난 그 주님의 구원을 위한 통로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으로 고통만을 느끼고 있습니까?

교회창립 1981년 10월 24일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E-mail : hanmadang@sbcglobal.net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